



‘마녀의 생명력이 깃든 신비로운 알바리뇨’

## 파조 다스 브룩사스 알바리뇨

PAZO DAS BRUXAS ALBARINO

지역	스페인 > 갈리시아 > 리아스 바이샤스		
포도품종	알바리뇨		
알코올	12%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8-10℃		
테이스팅 노트	연한 금빛 혹은 밝은 노란빛에 은은한 녹색 기운을 띠며, 라임 꽃 같은 흰 꽃향기와 복숭아, 살구, 시트러스 등 잘 익은 과실향이 강렬하고 신선하게 퍼진다. 입 안에서는 실키하고 감칠맛 나며 상쾌한 풍미를 주고, 또렷하고 잘 짜인 산도와 은은한 미네랄 뉘앙스가 조화를 이루어 길고 지속적이며 기분 좋은 피니시로 이어진다.		
페어링 TIP	흰 육류 / 익힌 해산물 / 흰 살 생선 / 채소(샐러드) / 부드러운 치즈 / 훈제/염장 음식 /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 제품설명



스페인 북부에 갈리시아의 리아스 바이샤스 지역에서 유래한 이 와인은 모래와 화강암 토양, 대서양적 기후가 빚어낸 개성을 지니며, 와인 이름에 갈리시아의 신비로운 전설과 자연과의 교감이 담겨져 있다. 레이블에 그려진 마녀들은 숲과 저택에 모여 춤과 주문으로 정령을 불러냈다는 갈리시아 마녀들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녀들은 알바리뇨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고, 오늘날 이 와인에 활기와 생동감을 주게 되었다고 한다.

### 와이너리



토레스 파밀리아 와이너리는 1870년 스페인 페네데스의 빌라프랑카 델 페네데스에서 설립되었지만, 그 뿌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섯 세대를 이어오며 가족 와이너리의 정체성을 지켜왔고, 오늘날 우리의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브랜드 비즈니스는 192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랜 세월을 걸쳐 발전시켜 온 증류 기술과 솔레라 숙성 방식은 깊이 있는 풍미와 균형감을 만들어낸다. Drinks International 2022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판매 1위 & 트렌드 1위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오늘날 토레스 브랜드는 단순한 주정이 아닌,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담아내는 스페인 가문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